

전통 상류주택 안채의 측면 툇마루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ide-TeoMaru of An-Chae(Inner Quater) of upper-class houses in traditional residence

김 난 아* 백 영 흠**
Kim, Nan-A · Beak, Yeong-Houm

Abstract

This study purpose that researching Side-TeoMaru of upper-class houses in traditional An-Chae space and research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ide-TeoMaru type is An-Bang and Gunner-Bang. That is found Chungchong-Do, Cholla-Do, Kyongsangnam-Do. I found different distribution in this region. This study has researched by measurement and personal interview.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이 거주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으로부터 인류문명은 시작되었고,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통주택은 자연적인 환경과의 관계에서 순응과 조화라는 과정을 반복해 오면서, 하나의 관습이 전통이 되어 결국 종합적인 문화라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주거를 이룩하였다.

그 동안 전통주택에 대한 연구는 공간 구성특징에 따른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와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등 여러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공간구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각 채별 배치형태분류와 평면형태분류는 이루어졌으나, 공간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구성요소의 하나인 '툇' 중심으로 한 지역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 상류주택 중 안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규모가 큰 골기와집은 모두 이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가옥은 "지정문화재목록"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의 수는 한정되어 통계학적인 가치를 가지지는 못하나 상류주택의 특성을 밝히는 데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조사방법은 대구대 주거사 연구실의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조사와 실측조사 및 면접조사, 사진촬영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1999년 10월 17일~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8월 15일~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가옥의 분포는 충청지역 40채, 전라지역31채, 경북지역 40채, 경남지역 26채로 총 137채를 조사하였다.(그림1)

* 대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 대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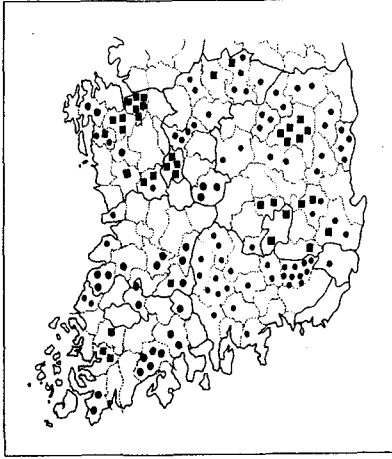


그림 1. 조사 대상주택의 분포도
●기존자료, ■실측자료

II. 상류주택 일반적 고찰

1. 상류주택의 공간적 특성

조선시대 상류주택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의 채(棟)로 이루어져 있다.

상류주택은 크게 남자의 공간인 사랑채와 여자의 공간인 안채로 구분되며, 이 관계를 중심으로 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은 지배이념이자 윤리 이념인 유교의 내외법, 가묘제의 도입, 신분계급에 따라 채의 분화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안채 중에서 특히 안방은 주부가 거처하는 곳으로 가정 생활의 중추가 되며,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주거 안에서 가장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안채는 취침, 취사, 난방, 저장등 주거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중추적인 역할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안채는 가정의 모든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퇴의 정의 및 기능

상류주택에서는 퇴가 상당히 발달해 있으며, 전면이나 후면에 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퇴'의 사전적 의미는 '집채나 기본간(基本間)에 물리어 달아낸 간(間) 또는 마루'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퇴간마루는 방이나 대청 마루방 앞에 있는 마루구조의 공간으로 뒷기둥에 의해서 인접하고 있는 공간과 일체화가 이루어진 공간이고, 뒷마루는 방이나 대청, 마루방 앞에 뒷기둥이 없이 좁고 길게 달아낸 마루구조로 동자주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는 공간이라 정의하고 있다.

전통주택에서의 '퇴'는 내·외부의 공간을 조화시키며, 공간의 흐름에 유기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매개적 공간과 주거면적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증식공간이라 할 수 있다.

III. 상류주택의 안채 공간 분석

1. 안방 측면뒷마루에 대한 유형

안채의 측면에 위치한 뒷마루의 존재가 지역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림2와 같이 유형화 시켰다.

유형	평면형태
안방 측면 퇴간형	
안방 측면 뒷마루형	

그림 2. 안방 측면뒷마루의 유형

안방의 측면에 퇴간마루가 있는 유형을 안방측면퇴간형으로, 뒷마루가 존재하는 형을 안방측면뒷마루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었다. 안방 측면퇴의 유형이 나타나는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전라지역에서는 안방측면퇴간형과 안방측면뒷마루형이 보이나, 경북·경남지역에서는 두 유형 모두 보이지 않았다.

안방측면퇴간형은 충청지역이 22.5%, 전라지역은 9.6%가 나타났으며, 안방측면뒷마루형은 충청지역에 22.5%, 전라지역은 6.4%로 나타났다.

표 3. 안방측면뒷마루형 유무에 따른 지역별 분포

지역 유형	충청 (N=40)		전라 (N=31)		경북 (N=40)		경남 (N=26)	
안방측면 퇴간형	9	22.5%	3	9.6%
안방측면 뒷마루형	9	22.5%	2	6.4%

그림3은 안방측면퇴간형이 있는 충청지역의 윤증고택으로, 측퇴는 부엌 및 옷방 측면에 위치한 골방과 측퇴 맞은편의 곳간채와 함께 안채 내의 독립된 작업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3. 윤증고택(측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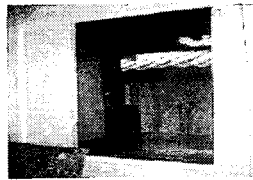


그림4. 윤증고택(안방)

윤증고택 중부와의 면담에 의하면 이 측퇴는 부엌에 인접하고 있어 가사작업을 도와주는 보조공간의 역할과 수장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조 하인들의 가사작업을 지위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하였다고 한다(그림4).



그림5. 아산성준경가옥



그림6. 아산성준경가옥

그림5·6은 아산 성준경씨 가옥으로 안방측면뒷마루가 존재하는 유형이다. 이 가옥 역시 측퇴 맞은편에 곳간채가 있어 안채의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농업경제의 발달에 따라 채들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부농층이 많았던 충청지역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2. 건넌방 측면뒷마루에 대한 유형

건넌방 측면에 위치한 뒷마루의 유형에 따라 건넌방측면퇴간형과 건넌방측면뒷마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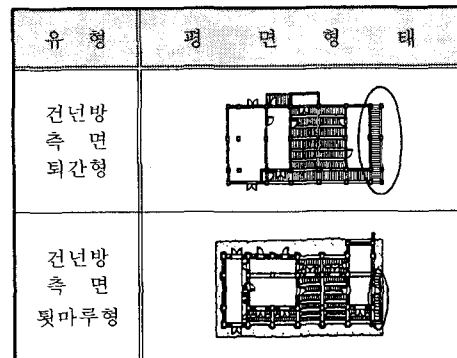


그림 7. 건넌방측면뒷마루의 유형

건넌방측면퇴간형은 그림8의 홍기응가옥처럼 전라지역에서 우세하게 보이는 형으로 방의 개구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부분에 좁게 달아낸 마루공간으로, 통로로서의 기능과 내·외부공간과의 매개적 기능 및 휴식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흥기웅가옥(측퇴)



그림9. 청도 운강고택

그림9은 청도 운강고택으로 건넌방에 주로 며느리가 기거하면서 안채내의 사랑방 역할로 접객의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건넌방 측면퇴간형은 충청에서 12.5%, 전라지역은 45.0%, 경남지역에서 19.2%가 보이며, 경북지역에서는 이러한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건넌방측면퇴마루형은 충청지역, 경북지역, 경남지역에서 나타나며, 특히 경북지역은 경남경계지역인 경북남부지역에서 다수 나타난다. 이는 남부지역의 따뜻한 기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건넌방측면퇴마루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

지역 유형	충청 (N=40)		전라 (N=31)		경북 (N=40)		경남 (N=26)	
건넌방 퇴간형	5	12.5%	14	45.0%	.	.	5	19.2%
건넌방 퇴마루형	9	22.5%	1	3.2%	9	22.5%	5	19.2%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건립된 상류주택 중 특히 안채 공간의 '측퇴'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청지역은 안방측면퇴마루형과 건넌방측면퇴마루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보이며, 전라지역은 건넌방측면퇴간형이 퇴마루형보다 많이 보였으며, 안방측면퇴마루형은 몇 채만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경남지역은 건넌방측면퇴간형과 건넌방

측면퇴마루형이 모두 나타났으며, 경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측퇴의 발달이 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안방 측퇴는 충청·전라지역이 발달하였으며, 건넌방 측퇴는 충청·전라·경남지역에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2.
2. 김란기, 마루의 공간적 의미, 건축과 환경, 1987.01, P28.
3. 김일진·조성기, "주거학", 동명사, 1973.
4. 문화재관리국, "지정문화재목록", 1997.
5. 문화재관리국, "지정문화재조사보고서", 1997.
6.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1985.
6. 조규순, 조선조상류주택마루의 공간론 연구, 홍익대석사학위논문, 1986.
7.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8. 채상우, 한국전통건축언어에 있어 '퇴'의 해석에 관한연구, 전북대석사학위논문, 1989.
9. 최일, 조선중기 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9.
10. Amos Rapoport,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